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과 교육사역

오 형 국

I. 종교개혁과 교육

1. 칼뱅의 신학과 교육

- 1) 신학의 교육지향적 구조
- 2) 인문주의자의 교육적 성향
- 3) 교회론의 교육적 차원

2. 제네바 개혁의 교육적 국면

- 1) 칼뱅의 개혁 마인드
- 2) 제네바의 상황
- 3) 제네바 개혁을 위한 교회적 프로그램

II. 제네바 아카데미 : 교회교육과 학교교육

1. 교회와 학교
2. 기초신앙교육과 고등교육의 조화
3. 신학과 인문주의 학문

I. 종교개혁과 교육

(교육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이론을 수립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교회의 규율과 직제를 제정하고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들을 작성하여 직접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다. 신학 논쟁과 정치적 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사건이었던 종교개혁은 또다른 차원에서는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인문주의자들의 운동과 달리 대중들에게까지 나아가는 운동이었다. 인문주의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층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 운동이었다면 종교개혁은 대중들을 과거의 종교와는 다른 패턴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대중운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필연적으로 교육의 확산을 낳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종교개혁은 어느 지역에서나 자국어의 번역성경, 교리문답서, 설교 등에 의해서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세적인 대학이 개혁되고 개신교 고등교육기관들이 설립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양적 발달이 촉진되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신속히 교육적 과정 또는 교화(indoctrination)의 과정으로 이행” 되면서, 교육은 종교개혁의 제2의 국면이 되었다.¹⁾

1) 본고는 논문 “인문주의의 관점으로 본 칼뱅의 신학과 교육사상”의 제 2부입니다.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상관성

[제1부 : 신학의 형성]

II. 인문주의 조류 속의 칼뱅

1. 인문주의의 개념과 성격

1) James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Phase Two of the Reformation" in *Die danische Reformation vor ihren internationale Hintergrund*, ed., Leif Grane and Kai Horby(Gottingen,1990), pp.149-150.



2.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와 칼뱅

III. 칼뱅의 신학 속의 인문주의

1. 칼뱅 신학의 구조와 특성

- 1) 신본주의와 인문주의 정신
- 2) 중심교리와 인식론적 원리

2. 칼뱅의 신학적 인식론

- 1) 두 지식론
- 2) 성서의 지식개념
- 3) 르네상스의 인식론

3. 칼뱅의 수사학적 신학

- 1) 신학과 수사학의 정신
- 2) 언어와 문체

종교개혁의 실체가 상당부분 교육적 과정으로서 진행되었다는 관점을 칼뱅의 제네바 개혁에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게 된다. 개혁자 칼뱅은 그의 제네바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였는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교육적 구조는 어떤 특징들에서 나타나는가? 또 그것은 칼뱅의 신학사상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 관련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신학과 교육의 관계성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신앙공동체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신학과 적절한, 그리고 충분한 관련성을 가진 기독교 교육학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학적 구조와 교육과정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네바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사적 조명은 이러한 관심을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 교육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²⁾

이 장에서는 칼뱅의 신학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 지향성과, 그의 사상의 실천인 제네바 종교개혁의 교육적 국면을 살펴 봄으로써 칼뱅의 제네바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며, 그 속에서 인문주의적 요소가 차지하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칼뱅의 교육사상은 그의 신학이 제네바 개혁 작업 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면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의 신학에서처럼 성서적인 신본주의의 요소와 인문주의적 성향은 병존하고 있다. 인문주의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국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인문주의는 신앙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영, 혼, 육의 전인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을 갖게 하며, 신비적 차원과 인격적 차원을 단절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의 말씀사역에서도 선포(kerygma)와 가르침(didache)을 분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목회사역이 교육적 구조를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인문주의자들이 갖는 보편적 속성인 교육자로서의 성향은 프랑스 인문주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 칼뱅에게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당시의 새로운 교육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였으며, 그가 신약성서의 교회직제중 교사의 직분을 재발견하게 하는 주요인이 된다. 셋째, 칼뱅은 학창시절에 스스로 인문주의 작가를 지망하리만큼 인문학문에 깊은 조예를 가졌던 인물로서 종교를 개혁하고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고등교육과 학문이 담당해야 할 불가결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추진하여 1559년에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는 당시의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적 수준을 갖춘 목회자와 신학자, 시민정부의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칼뱅의 인문주의 교육자로서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실천적 사례이다.

1. 칼뱅의 신학과 교육

종교개혁자 중 루터의 교육사상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은 반면 칼뱅의 교육사상은 루터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않아왔다. 그 이유는 루터는 개신교 교육의 효시의 자리에 있고 일반교육사에서 대 중교육의 장을 처음 연 사람으로서 인정되지만 칼뱅은 직접적으로 교육에 관한 저술을 남긴 것이 없기

2)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 75



때문이다.³⁾ 교육학을 신학이나 철학을 규범적 내용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는 기술(techne)로 간주한다면 칼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교육학적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한 바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교육의 정의를 “원리를 구체화하고 세밀화 시키는 힘을 주는 것”⁴⁾으로 볼 때, 그리고 신학과 관련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신앙과 계시의 빛 가운데서 현재의 경험과 관점을 성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⁵⁾ 또는 “복음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구조(신학의 구조)가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경험되고 해석되고 사건화 되는 살아있는 과정(교육과정)에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것”⁶⁾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사역 속에 함축된 교육에 대한 견해와 방법론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의미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교육의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칼뱅은 신학의 구조를 교육 지향적으로 구성하였다고 평가받는다.⁷⁾

1) 신학의 교육지향적 구조

칼뱅의 신학사상에는 신앙교육의 개념이 계속 확장 발전할 수 있는 구조 내지는 사교의 범주와 지향성이 깔려 있다. 첫째는 신앙을 “지식 또는 앎(knowing)”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접근하는 신앙관 자체가 교육적인 성향을 갖게 한다. 칼뱅의 제네바 개혁의 핵심은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개신교를 선택한 제네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발견한 개혁신앙의 성서적인 순수한 교리를 깨닫고 믿게 하는 일이었다. 칼뱅에게서 믿음이란 스콜라주의의 이성의존적 지식과는 다르지만 성서적인 “앎(yada)”의 개념을 따라 전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앙을 “신지식(knowledge of God)”으로 규정할 때, 신자들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견고히 하는 복음사역 또는 목회란 다름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적 사역이었다.

둘째로, 칼뱅의 신학에서 교육적 차원은 교회론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루터는 개혁의 1세대답게 영적인 최우선의 과제 즉, 교회에서 말씀만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적절히 집행되기만 하면 그밖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모두 감당하리라고 확신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와 복지뿐 아니라 교육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칼뱅은 신자들의 삶이 복음의 질서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존립 목적 자체가 신자의 양육(nurture) 또는 훈육(discipline)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또한, 교회론은 그의 신학에서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 신학의 최종 목적은 교회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학작업의 궁극적 목적이 성경의 주석서나 교의신학서를 저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뱅은 비관적인 인간관을 강하게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반문화적 입장에 빠지지 않고 은총을 인간적인 교육의 과정 속에서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신앙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인격적 과정의 노력과 그 가능성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적 정신의 반영이기도 하며, 동시에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성취하는 것을 신앙의 근본전제로 삼는 하나님주권사상과, 영육의 어느 차원도 배제하지 않는 성육신적 신앙원리(incarnation)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3) 인문주의자의 교육적 성향

3) 슈영흠, “공교육 기원”

4) Rhetoric of J.H.Newman, p.170. 칼뱅 신학에서 일반은총론은 현실을 구성하는 세속적 영역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하며, 수사학적 정신은 구체적인 인간을 다루는 실천적 지향을 내포한다. 이 두 요소는 신학이 교회의 교육사역과 접촉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된다.

5) 강용원, 같은책, p.79.

6) 정두섭, “教育神學의 觀点에서 본 John Calvin의 제네바改革의 分析的 研究”,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3.

7) A.G.Dickens, *Reformation and Society in Sixteenth Century Europe*(London, Harourt, Brace& World, 1966),p.165.



칼뱅은 당대의 교회와 신학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개혁자였으나, 개인적 성품에서는 인문주의자의 성향을 풍부히 갖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능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과 예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세속적 인문주의자와 달랐고, 교리적 관심을 배제하고 학문과 도덕상의 개혁만을 추구하는 통상적인 기독교 인문주의자들과도 구별되었지만, 종교개혁 진영의 신학자로서 칼뱅만큼 고전학문에 대한 애정과 해박함을 지닌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반은총론에서와 같이 이방문화 속의 선한 가치들을 칼뱅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신학자는 없다. 무엇보다도 칼뱅은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점에서 진실로 인문주의의 정신을 소유한 신학자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칼뱅의 인문주의자로서의 가장 본격적인 면모는 그의 교육적인 노고에서 찾을 수 있다.⁸⁾ 인문주의 운동의 실체가 교육과 학문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칼뱅의 인문주의자로서의 기질이 종교 개혁에서 교육에 큰 비중을 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문주의자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이 지닌 교육자적인 성향이였다.⁹⁾ 인문주의자들은 정치적 문사가 아니면 학자요 교육자였다. 인문주의자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차원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인문주의자(휴머니스트)라는 명칭이 인문학 과목(studia humanitatis)의 직업적 교사에서 유래하였듯이 그들은 대학에서부터 문법학교, 귀족의 가정교사 등으로까지 여러 수준에서 학문과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그리고 군주들을 올바른 지식으로 계몽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다.¹⁰⁾ 기독교 지성 안에서 인문주의자들과 인문주의 배경을 갖지 않은 신학자들과의 가장 주된 차이점의 하나는 교육의 가치에 대한 입장에 있었다.¹¹⁾ 교육의 가치에 대한 신뢰는 일반은총의 힘과 효능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는데 이는 칼뱅의 주석 곳곳에 나타난다. 칼뱅 이후에도 개혁파(the Reformed)라고 불리는 칼뱅주의와 개신교의 다른 전통들과의 차이가 여기에서 강하게 드러난다.¹²⁾ 칼뱅은 초월적인 감화에 의한 영적 변화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육의 과정 속의 성령의 역사(役事)를 믿었다. 그리고, 교육은 인간적 덕성만이 아니라 신앙적 경건을 가르칠 때 온전해 진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정의 속에 “종교적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건과 의로움의 책임”을 포함시키고자 했다.¹³⁾ 이로써 교육과 신앙사역의 연계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은 지성의 훈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덕을 붙여넣고 경건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도 교육은 유효하다고 믿었다. 칼뱅이 크게 공감하였던 그의 스승이며 인문주의 교육자인 꼬르디에는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과 교리를 경시하는 점에서 입장이 갈라졌지만, 교육에 관해서는 여전히 인문주의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였다.¹⁴⁾

8)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하던 무렵에는 인문주의 작가로 입신하려고 마음먹기도 하였다. 칼뱅 이해에서 이 부분은 회심 전 그의 생애의 초기의 배경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9) 토마스 만 역시 <마의 산>에서 한 인문주의자의 입을 빌어 그러한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문주의자들은 모두 교육자적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문주의와 교사 사이에는 역사적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심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도 하지요. 인문주의자는 교육자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당 그렇게 되어야 해요. 인간존엄성과 미의 전통은 인문주의자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Thomas Mann, <마의 산 >중에서, 정대현외, <표현 인문학>, (생각의 나무, 1997) p.103에서 재인용; “No matter anybody tells you, words and ideas can change the world. We don't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it's cute. We read and write poetry because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and human race is filled passion. And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and necessary to sustain life. But poetry, beaut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in *Dead Poets Society*(1989)

10) 인문주의자들이 군주들을 위한 교훈을 저술한 예는 대단히 많다. 마키아벨리 외에도 뷔데, 에라스무스는 물론,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헌사도 그 한 예에 들어갈 수 있다. 칼뱅1폴더, 프렌치 르네상스 파일 참조.

11) (W 90)

12) (김 영재) w90

13) 고린도 전서 주석 14:3

14) 로렌조 발라는 그의 성서주석(Annotationes in Novum Testamentum)에서 통찰력 있는 교리적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에라스무스도 역시 그러한 안목을 갖고 있었지만 교리에 대하여는 거의 무관심하거나 경멸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리논쟁이 학문과 도덕상의 긴요한 개혁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것이었다. J. Kittelson, “Learning and Education: Phase Two of the Reformation” in *Die danische Reformation vor ihren*



2. 제네바 개혁의 교육적 국면

칼뱅에 대한 대단히 폭넓은 이해를 가진 스탠포드 리드 교수는 아카데미에 관한 논문에서 칼뱅이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는 수고를 한다면 그가 교육의 개혁자라는 사실을 대번에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민들까지 교육되어야 종교개혁은 로마주의자들의 오류와 정치적 독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클리프가 자신의 성서번역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가 설 것이라고 성서번역 서문에 이른 바와 같이 칼뱅도 정치적 독재와 교황의 신학적 오류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분투한 인물이다.

1)칼뱅의 개혁 마인드

칼뱅은 제네바에서 1537년 8월부터 1538년 6월까지 파렐과 함께 하였던 1차 사역과 3년간의 추방 후 재청빙된 1541년부터 1564년 임종까지 26년 간 종교개혁의 사역을 수행하였다. 당시의 다른 인문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뱅은 자기 시대가 영적,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신의 치열한 노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교사를 보내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믿었고, 세상을 바로 잡는 그 일에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여겼다.¹⁵⁾ 그는 당대를 향하여 수행해야 할 자신의 과업은 이후의 여러 시대를 위하여 보편적인 신학을 주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이라고 믿었다.¹⁶⁾(**신학작업과 교회사역을 양자선택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연구와 저술작업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네바 종교개혁의 과업은 전체적으로 타락한 기독교 사회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신자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그는 이 과업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있었다. 사회나 국가를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존재를 변화시키는 데 달려있다고 믿었으므로 개혁의 결정적인 승부처는 교회였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뱅의 교육적 목회와 그에 대한 반발)

제네바에서의 그의 사역의 결과는 존 녹스의 소감에 따르면 “사도 시대 이래로 지상에 존재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 “라 할만큼 성공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칼뱅 자신의 삶의 과정은 갈등과 투쟁,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적지 않은 대중의 반발과 정치적 적대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진행된 칼뱅의 종교개혁은 엄격성에서는 극단적이었고, 그의 지도력 하에서 제네바의 정치체제의 성격은 신정의 형식을 띤 독재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제네바는 칼뱅이 통치한 것은 아니었고 신정정치체제도 아니었다. 그는 정치권력을 갖지 않았다. 그가 시민권을 얻은 것은 죽기 얼마 전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위한 경호원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으므로 반대자들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곤 했다. 칼뱅은 임종 직전인 1564년 4월 제네바 교회의 목사들에게 한 고별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지독한 싸움 속에서 살았다. 나는 저녁마다 문 밖에서 오륙십 발씩 쏘아대는 화승총질로 조롱하는 사람들의 문안인사를 받았다.....사람들이 개들을 풀어 놓고 쫓겨서 내 옷을 잡아 뜯고 내 다리를 물게 했다. 나는 제네바에서 일어난 삼천 개의 소란을 막아냈다¹⁷⁾

internationale Hintergrund, ed., Leif Grane and Kai Horby(Gottingen,1990) p.158. Cf. Bentley, Jerry, *Humanists and Holy Writ: New Testament Scholarship in the Renaissance*(Princeton,1983), James D. Tracy, *Erasmus, the Growth of a Mind*(Geneva,1972). James Kittelson, *Capito, from Humanist to Reformer*,pp.23-51에서 요약 설명되고 있음.)

15) 구약성서주석 예레미아서 1:9-10

16) W. Bouwsa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1988), p.191. 칼뱅이 보편적 진리탐구를 핑계로 자기 시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신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명한 증거는 이사야 39:8의 주석에서 히스기야에 대하여 한 말이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말년까지 검약하게 생활하였다. 그가 목회자의 급여를 스스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교황은 그가 죽은 후 카톨릭 교회에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었는데, 그때 교황이 그의 신학적 사상이나 조직적 역량보다 오히려 청빈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권위와 영향력의 원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제네바 개혁의 전체적인 난관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칼뱅은 제네바를 개혁신앙의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 결코 정치적 개종이나 시민종교의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2) 제네바의 후진적 상황: 칼뱅 이전의 제네바

제네바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써 종교상의 변혁을 능동적으로 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제네바가 개신교를 수용한 것은 스위스 지역의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는 이웃의 다른 도시들보다 더디게 반응한 것이었다. 그것도 종교문화적 각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제네바가 바젤과 베른,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한 개신교의 거점이 된 이웃 도시들보다 종교개혁에서 뒤진 이유는 정치, 문화적 후진성에 있었다. 특히 인문주의 문화에서 후진적이었다. 종교적 변화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었다. 대부분의 개신교 도시에서는 에라스무스적인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이 복음적 교리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신도들에게 설교하였고 그들이 초기 지지자들이 되었음에 반해 제네바의 성직자들 중에는 새 사상에 관심있는 자가 없었다.¹⁸⁾

3) 제네바 개혁을 위한 교회적 프로그램

칼뱅의 개혁작업의 목표는 이 도시의 도덕적 수준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명목적 신자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때, 실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후대에도 칼뱅주의 전통의 특징으로 지속된 것으로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전면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하여 칼뱅은 신앙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였고, 권징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그는 제네바 시를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신앙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로 만들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¹⁹⁾ 이 작업을 위한 주된 방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세교회의 성례주의(sacramentalism)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설교와 교리교육 중심의 목회였다. 예배는 과거의 미사와 달리 설교 중심으로 행해졌고 평일에도 성경강해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 특히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로써 교리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그 결과 “제네바의 소년들은 소르본느의 박사들보다 구원의 도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다. 칼뱅은 이 신앙교육서들과 교회법령 들을 통하여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둘째, 교회가 교육적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교회의 직제에서 교사(doctor)의 직분을 회복시켰다. 교사의 직무는 연구와 교육으로서, 목사가 겸할 수도 있지만 고

17) J.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이오갑 역, <칼빈-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197-199.

18)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 이전의 제네바에는 뚜렷한 지식인이나 사상가가 거주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아그립바가 1521-23년간 거주했을 뿐이다. 이러한 문화와 교육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사실은 제네바 학교의 교장을 토착민으로서는 맡을 사람이 없었으므로 외부에서 청빙해야 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W.Bouwsma, "The Peculiarity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Religion and Culture in Renaissance and Reformation*, p.71.

19) 박상일, 31. 칼뱅 시대의 제네바가 신정국가였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정(theocracy)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16세기의 제네바는 호메이니 식의 정치구조와는 거리가 멀고, 하나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권세와 국가의 권세가 협동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유직무는 목양적 돌봄과 성례의 집행, 행정적 직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었다. 목사가 겸하지 않는 교사는 칼뱅의 구상에 따르면, 교회와 연결된 신학교 및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는 교육의 효과성을 위한 질서와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가 권징의 권한을 보유하게 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권위와 시정부의 물리적 권력의 협력관계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칼뱅주의 개혁파(Calvinist Reformed)의 전통이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교회와 국가의 내면적으로 필연적인 연관을 갖는 상보적 관계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분리됨으로써 교회의 자율성이 확보된다. 양자의 관계는 “교회는 시민사회를 계몽하고 인도하며, 시민정부는 교회의 선교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²⁰⁾ 칼뱅의 제네바 개혁의 과정은 파렐이 기대했던 대로 호소력 있는 설교와 성서강해를 통한 신앙적 감화와 설득, 그리고 치밀한 조직적 능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칼뱅의 목표는 제네바 전체를 경건한 성도들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용어로 성시화 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이나 명목적 신앙을 넘어 신앙내용의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소유하며 신앙과 생활이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일치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었다. . .

a) 교리교육 : 교회의 정체성

칼뱅의 초기의 개혁조치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다.

칼뱅이 파렐의 강권에 의하여 1536년 8월 제네바 교회의 성경강해자(reader in the Holy Scripture)로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예배 모범이나 신조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시민들은 심각한 신앙적 무지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목회보조자의 역할을 맡을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이 때의 상황을 후년에 <서편 주석>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곳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설교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우상을 미워했으며 그것을 불태울 기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습니다.”²¹⁾

교회가 처한 이와 같은 상태를 파악한 칼뱅은 신속하게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그것은 새로운 교회조직을 위하여 신앙고백서(confession, 1536년 11월), 교회의 예배와 조직에 관한 규례(Article, 1537년 1월)와 교리문답서(catechism) 등과 같은 교회조직과 신앙훈련에 필요한 기초문서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를 통하여 시민 전체에게 신앙교육을 시행하고 삶의 규율을 세워나가고자 했다.²²⁾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고백에 이르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었다. 칼뱅이 교리교육에 열정을 가졌던 이유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기초는 성서적으로 올바른 교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루터가 “이전의 사람들은 교황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악행을 공격했지만 나는 그의 교리를 공격한다.”고 하며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폐단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교리의 타락에 있음을 지적하였던 것에 대하여 칼빈은 전적으로 동의한다.²³⁾ 이것은 칼뱅 신학의 근본적 전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칼뱅에게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간주되는데, 교리란 바로 신앙의 지적 차원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리교육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 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네바에서 교회의 정체성 확보 즉 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제 1순위는 교리서를 작성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교리교육에서 우리는 칼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견한다. 첫째, 칼뱅과 통상적인 기독교 인

20) 정두섭, pp.28, 61; 상일, p.31.

21) 황성철

22) 황성철, 신학지남 p.145.

23) (김영한, <개혁신학의 특징>(ivp p.56)



문주의자들과의 차별성이 여기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대교회의 전통에 호소한 점을 들 수 있다. 교리문답은 루터나 칼뱅 등 종교개혁자들의 창안물이 아니라 본래 세례신창자를 위해 실시되었던 고대교회의 관습이었다. 이 전통이 중세 초의 혼란기에 사라져 버린 것은 성직자들의 태만과 무지 때문이었다.²⁴⁾

셋째, 칼뱅이 참 교회의 정체성을 1차적으로 바른 교리에 두었을 만큼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그 자신의 지성주의적인 경향을 반영한다. 신앙에서의 지성주의란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믿고자 하는 자세를 뜻한다. 칼 홀은 “칼뱅주의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며, 칼뱅주의의 문화적 침투력이 주로 그것이 지니고 있는 지성주의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²⁵⁾ 칼뱅이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²⁶⁾라든지, ” 회개와 신앙은 가르쳐진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²⁷⁾고 말한 것은 감정의 근원에도 지식이 작용한다는 칼뱅의 사고를 보여준다. 물론 칼뱅은 교리도 설교도 지성적 내용이 스스로 능력을 낸다고는 믿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성령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²⁸⁾

그러나 칼뱅의 지성주의는 지적인 정직성과 비판정신을 추구하는 인문주의 정신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으므로 그의 교리교육은 맹종과 암기의 교리교육이 아니었다. 칼뱅의 교리교육은 중세교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교리를 믿는 것에 대한 교황청의 가르침인 함축적 신앙(implicit faith)의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함축적 신앙이란 생각이 단순한 신자가 교리 자체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지하더라도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의 유익함을 신뢰함으로써 갖게되는 신앙을 가리킨다.

b) 교사직의 회복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리교육을 체계화시키는 한편, 교회가 바른 신앙을 전승하는 교육의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착안한 것은 교회의 제도 속에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사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 명시된 것이지만 중세교회의 전통에서는 사라져 있던 것이었다.²⁹⁾

그러므로 칼뱅이 교사직을 통하여 의미한 것, 부여하고자 한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

첫째, 교회의 교사직에 관하여 많이 논란이 되고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는 이 두 직분이 동일 인물인가에 관한 의문이다. 로버트 헨더슨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교사직 : 신학자 목사의 역사(The Teaching Office in the Reformed Tradition :A History of Doctoral Ministry)"이라는 노작에서, “전통적으로 이 두 직분을 한 사람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늘 있어왔는데, 학자나 교사는 학술적인 지식으로써 교리나 교훈을 가르쳤으며 목사나 설교자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적용해 왔다 “고 밝히고 있다.³⁰⁾

24) 중세 말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게르송(Jean Gerson)이 교회의 개혁이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당국에 교리교육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거부된 바 있었다. 제도권 교회가 종교교육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때 이른 바 분파주의로 불린 발도파, 보히미아 형제단이나 위클리프, 후스 등이 각기 어린이를 위한 종교교육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교회당국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버렸으나 종교개혁자들의 교리교육 운동을 위해서는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한인수, <칼뱅의 교리문답>, (서울경건, 1995)p.3)

25) A.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1995),p.129 n.1.

26) (Piedmont의 Seigneur에게 보낸 편지 1554, 2월 25일, CO XV.42, 바우스마 국역 236,)

27) (렘26:3주석)

28) Bouwsma, *John Calvin* p.529 n.143.

29) 에베소서 4장 11절.

30) McNeil, "Doctor Ecclesiae" in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Baker, 1984),p.10.



이에 대하여는 칼뱅 스스로도 이 직분을 본질상 통합하지 않는 한 겸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목사의 교육과 전체 교회의 교육을 맡은 또다른 부류의 교사(Doctor)t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목사가 교사로 불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칼뱅 자신의 교사적 인식)

칼뱅은 자신의 소명에 관해서도 교육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생애의 후기인 1559년에 증보된 <기독교 강요>의 독자를 향한 머릿글에서 그는 자신의 직무를 “교회의 교사직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C) 권징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교육적인 목회의 특성을 고찰할 때 주목되는 것은 권징의 시행이다. 칼뱅의 제네바 사역에서 목회적인 면의 주된 내용은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권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르치는 일이 진리의 지식과 지혜로써 성숙에 이르기를 목적이라면 권징은 교회의 성결을 목적하는 것이었다.³¹⁾ 권징(勸懲, discipline)이란 “권면과 징계로써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한국 교회에서는 치리(治理)로 번역되기도 한다. 또 이 용어(discipline)는 징벌의 차원을 띠지 않는 훈련(訓練)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권징의 본질이 잘못을 범한 자를 권하고 징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례이다. 칼뱅 역시 교리와 권징의 밀접한 상호관계성을 주장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교회의 영혼과 그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묘사한 바도 있다. 교리와 권징은 교회의 삶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권징은 교리를 알려주고 해석하고 보호해주는 척도요 방편이었다.³²⁾

(칼뱅이 권징을 중요시 한 증거들)

교회의 권징에 대한 칼뱅의 확고한 태도는 1541년 교회법령과 제네바 콘시스토리의 설립취지에 잘 나타나 있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실효를 갖게 하기 위하여 권징은 교리문답만큼이나 불가결한 요소였다. 따라서 그는 제네바로부터의 재청빙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사항, 즉 교리문답과 권징에 관한 지지를 약속받지 않는다면 제네바의 목사로서의 직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³³⁾

1541년 제네바 시의 간곡한 요청을 수락하여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칼뱅은 교회의 훈련과 권징에 관하여 명백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때에 그가 밝힌 입장을 베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생활의 무질서를 고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망명생활하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 들입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진리 자 체인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악한 삶이 깔려있고 행하는 것이 말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면 나를 두 번째로 이 도시에서 내치셔서 나로 새로운 망명지에서 고통의 쓰라림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아니면 준엄한 법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순전한 권징을 다

31) 황성철, 신지,p.148; 맥킴,p.15.

32) R. Hedtke,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Heidelberg, Quelle & Meyer, 1969) p.132 recited in,

정준모, <칼빈 : 교리교육과 현대교육목회론>(서울, 은혜출판사,2003),p.51.

33) F.Wendel, p.90, W. Koehler, *Zurcher Ehefericht und Genfer Konsistorium*,(Leipzig,1942)Vol.II, 9, 894.



시 세우십시오.³⁴⁾

칼뱅이 추구한 신앙훈련의 특징은 신자들의 교회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까지 신앙적인 철저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권징의 동기와 배경사상 : 성화교리와 도덕주의)

칼뱅은 권징을 대단히 중요시하였으므로 권징의 특성은 그의 사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칼뱅주의 전통이 다른 개신교 신앙전통과 차이점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를 신학적 개념에서는 예정론과 하나님 주권사상, 인간의 전적 타락 등으로 대표되는 철저한 신중심주의로 본다면 그것에 기초한 실천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독립과 자율에 대한 비타협적인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는 세속권력의 상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후자를 가능케 한 것은 칼뱅의 독특한 권징의 사상이었다. 그만큼 권징은 1차적으로 칼뱅의 교육적 방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칼뱅주의 신앙전통의 특질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칼뱅의 제네바에서 권징은 그의 교회개혁의 과정에서는 신자들의 신앙적 삶을 훈련하는 교육적 차원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표면적으로 사법적 통제 또는 정치적 억압의 표현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는 권징의 과정 중 징벌의 시행과정에 시정부의 권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권징의 권한을 갖는 주체와 시행방법 및 해벌의 결정 등에 관해서 교회의 치리법원(consistory)과 시의회,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복잡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칼뱅의 권징사상의 배경이 되는 성화교리와 스토아적 도덕주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³⁵⁾(한국교회에서는 성화교리와 유교적 도덕주의의 상관성을 관심하게 된다)

권징은 신학적으로 성화교리를 실천하는 제도적 방편이었다. 종교개혁을 발발케 한 루터의 위대한 교리적 발견인 이신칭의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중세 교회의 구원관의 오류와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개신교도들의 자유는 종종 무규범, 또는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으로 오해되거나 그런 상태로 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신학적 대응책이 구원의 표현으로서의 선행과 거룩한 삶, 즉 성화(sanctification)의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V. 제네바 아카데미

칼뱅이 가장 많은 힘을 쏟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최종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는 바로 제네바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聖市)’로 만들고자 회구했던 칼뱅에게는 기독교 사회의 체제를 완결하는 성취였으며, 신학적 인문주의자이며 교육자로서의 칼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적이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국가의 공교육 체제 하에서 종교와 일반교육이 분리된 오늘날의 교회가 교육문화영역의 사역을 모색하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연구대상이다.

우리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칼뱅의 신학사상이 교육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신학교육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학문과 고등교육의 발달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경험과 사례를 제공해 준다. 첫째, 이 아카데미를 설립한 칼뱅의 교육적 구상은 교회교육만이 아니라 기독교 사회의 시민교육에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교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설립한 이 학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시민정부에서 일할 그리스도인 공직자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설립목적의 근거에는 신학적 이념과 인문주의적 이념이 함께 자리잡고 있다. 신학적 이념은 칼뱅신학의

34) Theodore Beza, *Life of Calvin*, pp.25-26.

35) (상기 문제에 대하여는 이정숙 논문참조)



강력한 근본 전제인 “하나님 주권사상(God's Sovereignty)”으로서 신앙의 의미가 개인과 교회 안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인문주의적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신학과 여타의 모든 전문적 직업학문은 언어와 인문학의 조예 위에서 연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교육이 초중등교육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고등교육으로까지 발전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칼뱅의 교육사상에서 양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를 이루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7년과정의 초중등과(schola privata)와 고등과(schola publica)의 두 부문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초중등과정은 제네바의 문화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시민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었다. 고등과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하여 교회와 시민사회를 위한 인재양성과 학문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이 도시에서 기독교 사회의 체계가 완비되었고, 칼뱅의 교육적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는 결과를 낳는다.³⁶⁾

셋째, 상기의 목적을 위한 교육의 학문적 교과과정은 신학과 인문주의의 종합을 보여준다. 언어와 인문학의 기초를 강조하는 교과과정은 종교개혁자들이 수용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교육사상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바 아카데미는 칼뱅 사상을 구성하는 성서적 신앙개념과 인문주의의 문화적 성향이 교육의 영역에서 통합된 실재를 보여준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네바의 개혁사상이 이 곳에서 수학한 각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통해 전유럽으로 전파되어 나갔다는 점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는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중요한 선교적 의의를 갖는다.

1. 교회와 학교 : 기독교 교육의 두 제도적 날개

1) 설립 동기와 목적

칼뱅은 설교의 능력으로 제네바 시민들의 다수를 종교개혁의 노정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지만, 설교로써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Serene, 제네바의 설교) 또한 교리문답교육을 통해 개인적 신앙고백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만으로 제네바에서 기독교 사회를 형성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목회자가 부족하던 시대에 개혁교회가 지속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교회’로 성립되려면 훈련된 목회자와 능력있는 교사가 배출되어야 하며, 시민사회 역시 기독교 사회의 지도력을 담당할 경건하고 학식있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하여 전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고 고급과정의 신학교육을 실시할 고등교육기관이 필요를 인식하였으며, 여기에는 인문주의 교양학문의 교육이 밀반침이 되어야 함을 확신하였다.³⁷⁾ 그것만이 지속적인 교회의 개혁과 기독교 사회를 위한 인재양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³⁸⁾ 따라서 칼뱅에게서 기독교적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방법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학교였다. 이것은 앞선 시대에 종교적 삶의 본질적 개혁을 추구했던 공동생활의 형제단(Brethren of

36) Charles Borgeaud. *L'Academy de Calvin, Historie de L'Universite de Geneve (1900-1934)*, Vol.1 1536년의 1차 사역에서 교리문답 등 기본교육을 위한 열정을 보라, 2차사역에서도 이 단계를 위한 교육에 계속적으로 온 힘을 기울인 바 있다.

37) 1541년의 교회법령은 ‘거룩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위임받은 자들의 의무를 기술하면서, 그러한 교육은 “언어와 인문학문”이 없다면 쓸모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회직과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직분을 맡을 자들 모두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대학이 설립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Projet d'ordonnances ecclesiastiques, CO X,21*. Bouwsma, *John Calvin*, p.4 재인용.

38) 루터의 경우에도 그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문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학문의 영역에서는 인문주의의 커리큘럼의 강력한 옹호자였다. 그는 학생들이 교양과정에서 전통적인 변증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라틴주석에만 국한된 교육을 받음으로 시와 수사학, 언어, 역사 및 그가 성서주석과 신학적 훈련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과목에 대한 교육이 결핍될 때 고급과정에서의 신학개혁은 지체되거나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과목들을 촉진시키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동료들, 그리고 1518년에 멜란히톤이 도착한 후에는 각별히 그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멜란히톤이 1520년에 작성한 인문교양학부 관련 학칙에는 스콜라주의를 가리키는 모든 것이 제거되었다. Lewis Spitz 51 ; R.Kingdon, *Transition and Revolution*, 171-75.



Common Life)의 창시자 그루트도 그러했고 루터도 경험했던 것이다.³⁹⁾ 더욱이 16세기에는 이미 수도원의 이원론적인 경건이나, 스콜라 학자들이 이성주의로써 정식화 해 놓은 신학 지식은 현실적합성을 잃고 있었고, 사회는 점점 르네상스의 전인적이며 사회적 삶 속에서 경건하고 유능한 인간형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종교적 지식을 보완하는 인문주의 학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a) 당시의 제네바의 학교의 상황

1536년 칼뱅이 제네바에 오기 전 이 도시의 학교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13세기부터 몇 개의 학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대중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마저 매우 빈약하였다. 15세기에 들어와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기풍 속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칼뱅이 제네바에 부임한 후 목회자들은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스승이었던 마뉘랭 꼬르디에를 이 학교로 청빙토록 한다.⁴⁰⁾

특히 교육사상에 관해서는 칼뱅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b) 2차 제네바 사역과 학교개혁

1541년에 제네바로 복귀한 칼뱅은 교육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무지는 미신의 어머니이며 문화는 종교와 자유의 시녀”⁴¹⁾라고 확신한 그는 제네바 시민을 개화시키고 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하여는 양질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황무지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며, 자녀들이 목회직과 시민정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명령입니다.⁴²⁾

1541년에서 1555년까지 제네바의 개혁교회는 리베르틴과 로마주의자들과 세력가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교수진)

대학설립의 가장 중요한 교수진의 충원 문제는 로잔 아카데미 교수들의 집단 이동으로 예기치 않은 해결을 보게 되었다. 로잔은 베른의 위성도시(vassal city)였는데 베른의 쾰리프와 당국자들이 로잔 아카데미 교수들과 교회의 과문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다. 이러한 갈등과 충돌의 결과로 로잔 아카데미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임하고 제네바로 이주하였고, 제네바는 그들을 아카데미의 교수로 충원하게 되었다. 아카데미의 학장(rector)은 베자(Theodor Beza)가 임명되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에 관하여 샤를르 보르쥬는 이렇게 말하였다.

칼뱅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는 한 번에 교회와 학교, 그리고 요새도 시를 세

39) Hyma

40) Ibid.

41) 황성철, p.85. 칼뱅은 인문학문을 신학의 시녀가 아니라 군대의 이미지로 이해하였다. (Serene) 인문학문과 문예가 종교의 시녀가 아닌 군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11세기 카롤링 르네상스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비교가 필요하다. 단편적인 인문지식의 교육과 인문정신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칼뱅의 인문주의 결론부 참조)

42) B.J.Kidd, Documents Illustrativ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Oxford,1911, p.594, W.S. Reid, p.8. 교회법령의 이 구절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이주자들에 의해 전승되어 하버드 대학의 설립 취지문에 반영되고 있다.



움으로써 제네바의 미래를 공고히 하였다. 그것은 근대에 있어서 최초의 자유의 요새였다.⁴³⁾

C) 학교와 교회의 제도적 관계

칼뱅이 추구한 교회는 단순히 주일의 예배나 종교 프로그램만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교육적인 공동체였다.⁴⁴⁾ 그가 추구한 기독교 교육 또한 종교적 예전이나 교회 조직 안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 신자로서 자기의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며 믿고, 삶의 실제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경건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교회가 예전 및 종교교육을 담당한다면 학교는 교회의 교육적 기능만으로 다 수행할 수 없는 전인적 교양교육과 전문적인 고등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파트너였다.

2.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의 조화 : 인문주의 교육이론과 학문관

칼뱅의 교육사상에서 주목되는 특징 중 한 가지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조화이다.⁴⁵⁾ 교육 사상가들 중에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어느 한 시기의 중요성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각 발달단계에 필요한 교육적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3세 이하 유아기, 사춘기의 제2의 탄생, 또는 전문분야의 능력을 훈련하는 고등교육과정 등이다. 특히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즉 신앙의 전승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유아교육이나 청소년기의 교육에 매우 치중하지만 성인 교육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곤 하며, 그 결과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현해야 할 복음의 의미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관한 교육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절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스콜라 프리바타 과정이 반영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 시대의 새로운 교육사조를 살펴보고 스콜라 푸블리카 과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칼뱅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을 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재양성의 중요성과 함께 학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a) 스콜라 프리바타와 인문주의 교육이론

제네바 아카데미는 1559년 소의회에서 인준된 제네바 대학법규(Leges Academiae)에 따라 초중등과정인 스콜라 프리바타(schola privata)와 고등과정인 스콜라 푸블리카(schola publica)의 두 과정으로 성립되었다. 프리바타와 푸블리카 두기관은 공히 칼빈이 구상한 당시의 교육에 대한 개혁적 구상과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⁴⁶⁾ 이 두 과정은 전체 체계로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독립되어 있었다. 아카데미 전체의 학장(rector)은 베자로 임명되었고 초등과정의 교장(principal)은 꼬르디에였다.

스콜라 프리바타는 6세 또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들을 받았으며, 학업과정은 7개 학년으로 구분되었다.

고등과에서는 교양학문과 신학을 가르쳤다. 스콜라 프리바타의 교과과정이 치밀하게 잘 짜여진 것에 비하여 고등과는 그렇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아카데미의 교과과정은 학문적으로는 인문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희랍어와 라틴어의 학습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 교재로는 성경이 아니라 희랍과 로마의 고전을 사용하였고, 구문과 문체의 문화적 배경을 강조하였다.

43) McNeil, p.196.

44)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진보와 성장은 칼뱅에게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는 선언한다. 에베소서 주석 4:15. 바우스마, p.437.

45) Borgeaud

46) Serene Jones, p.62.



(이 시대의 교육사조와 칼뱅)

제네바 아카데미의 스콜라 프리바타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첫째, 생도들을 초등 과정에서부터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전과정을 조직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교육이론에 의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신앙교육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초중등 단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의미있다. 둘째는 이 과정에서도 직업적 전문교육의 기반이 될 인문주의적 교과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인문교육은 언어의 기능적 기초로서만이 아니라 경건과 덕성의 함양을 위하여서도 초중등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받았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교육을 임시방편의 인력양성이나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 의하여 관심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시대의 교육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변화 2가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스콜라주의에서 인문주의로 중심이 이동하는 이 시대의 교과과정의 재편성과 초중등과정의 기초교육을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교수법의 발전이다.

교육의 영역에서 스콜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루터의 비텐베르크에서 발견된다. 그는 1517년 5월 18일 랑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신학과 성 어거스틴은 잘 전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 대학을 잘 다스리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점차로 그의 왕좌로부터 떨어지고 있으며 최종적인 운명은 시간문제이다. 학생들이 명제집에 대한 강의를 상당히 혐오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47)

이 시대의 주요한 교육이론과 교수법을 칼뱅이 체득하게 된 것은 스트라스부르 체류 기간 동안 슈트름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스승 마뉘랭 꼬르디에로부터의 배움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로부터 칼뱅은 교회의 교육적 구조나 교회와 학교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실제와 교수법 등에 관하여도 새로운 사상을 터득할 수 있었다. 초중등교육에 관하여 칼뱅은 꼬르디에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였다. 1479년 노르망디에서 출생한 꼬르디에는 사제출신으로서 개종한 인물이며 고전학문에 열정을 지닌 라틴학자였다. 꼬르디에는 마르슈 학교에 있을 때, 고급한 수준의 연구가 문법적 기초의 결합(특히 형태론과 구문론) 때문에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523년에 마르슈 학교에서 꼬르디에의 제자였던 칼뱅은 자신이 이 스승으로부터 학문과 문필에 결정적인 영향을 힘입었음을 증언하고 싶어했다. 1551년에 출간된 <데살로니카 서신(I) 주석>의 헌사에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으로 당신이 우리의 연구에서 갖는 위상은 뚜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후원 하에 문학의 길로 들어서면서 크게 진보하여 주님의 교회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파리에 보냈을 때에, 나는 아직 아이였고 단지 라틴어에만 취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동안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가르쳐준 합리적인 방식은 나로 하여금 매우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들어간 그 해에, 당신이 매우 열정적으로 1학년 반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권태로움 때문에 4학년으로 내려가고 싶어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스승의 지도를 받던, 빈 가죽 부대 마냥 바람만 잔뜩 든 학생들을 완전히 새롭게 교육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수업과 같은 매우 유익한 수업을 듣기로 한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서투른 인간의 의지 아니 오히려 번덕이 우리들의 학업을 좌지우지하는 탓에, 만약 우리가 재빨리 수업의 이점만을 취하려고

47) Luther, WA, Br.1:94 line 8-13, 이은선, “기독교 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 <신학연구>(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제5집, 1997), p.63. 재인용.



만 했다면 우리는 곧장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원칙은 나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후대가 내 저작에 대해 일말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이 점을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는 나의 저작들이 부분적으로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⁴⁸⁾

그뿐 아니라 꼬르디에는 기초교육에서의 인문주의 교육의 의의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라틴어 교육을 통하여 글쓰기와 말하기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고상한 삶을 위한 자극을 소년들에게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문법책으로서 유명한 그의 저서 *De Corrupti Sermonis Emendatione Libellus*의 서문에서 꼬르디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첫째, 이로써 모든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글쓰기를 잘하게 하려 함이며, 그 다음으로는 소년들이 라틴어 회화를 잘 할 뿐만 아니라 고상한 삶을 영위하도록 자극받게 하려 함이다.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면의 말씀들을 뿌려 놓았다. 이것은 언어를 정제하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경건이 없이는 배움에서의 진정한 진보는 있을 수 없다.⁴⁹⁾

고전교육의 성격은 인문주의자들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기는 하였지만, 꼬르디에나 슈트름 등 칼뱅과 공감하고 동역한 인문주의 교육가들은 문학적 경건(*Pietas literata*), 웅변과 지혜로운 경건(*Eloquens et sapiens pietas*)의 결합을 핵심적인 가치로 추구하였다.

b) 스콜라 푸블리카와 칼뱅의 학문관:

(무지와 오류에 대한 비판)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매우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기관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제네바를 개신교 도시로서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은 전문적 능력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으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학문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아카데미를 설립한 주된 목적의 하나는 유능한 개신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학문의 수월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칼뱅이 생각한 개혁파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로서 경건과 함께 충분한 학문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적 학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학문에 대한 견해는 아카데미의 성격과 목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칼뱅은 “누구든지 일급의 학자(*premier escolier*)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⁵⁰⁾라든가, “언어와 인문학문 없이는 교리에 대한 교육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강조하며 목회자들이 성경을 학문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청중들에게 설득력있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가 목회자 교육에서 학문적 수준의 제고에 우선적으로 힘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종교계의 학문적 성향과 수준이 대단히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대의 교육과

48) Jacques Desmay의 『칼뱅의 삶에 대한 고찰』(*Remarques sur la vie de Calvin*) (프랑스 역사의 흥미로운 기록 5권)과 Lefranc의 『칼뱅의 젊은 시절』(*La jeunesse de Calvin*), Paris, 1888, p.13 ; <테살로니카 전서 주석(*Commentarius in utramque Epistolam ad Thessalonicenses*)>,(Geneva, 1551). 현정 편지는 1550년으로 기입되어있다.*Calvini opera*(Baum, Cunitz와 Reuss 편), X III, 525 s.

49) Woodward, p.155.

50) McKim, 16, <신명기 주석> 5:23-27.



학문의 상황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자는 에라스무스였는데, 칼뱅도 이 점에서는 전적으로 그와 일치하고 있었다. 먼저, 칼뱅은 주교들이나 수도사들이 신학과 세속적 학문에 무지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칼뱅은 학문이 멸시 당하고 퇴보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알고 있었다.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정치가 학문의 권위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복음 자체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로 초래된 가장 심각한 폐단은 설교의 전락이었다.⁵¹⁾ 정상적인 시대에는 납득되지 않는 일이지만 당시에 설교는 ‘하급 성직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교회정치를 좌우하는 고위 성직자들의 관념이었다. 이것은 칼뱅과 같은 개혁자들에게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현상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기독교회의 깊은 병리였다. 칼뱅은 1538년 추방된 후 사들레 추기경이 제네바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기 위하여 보낸 서신에 대한 답신을 제네바 시로부터 위촉받았는데, 여기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개혁자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정이 어떠했던가를, 그리고 목회사역을 준비 하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당신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 이란 것은 순전한 궤변이었으며 그것도 왜곡되고 혼란스럽고 뒤틀리고 얼토당토 않은 궤변이어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밀스런 마술로 묘사될 정도였다는 것을 당신 자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⁵²⁾

칼뱅이 보기에 스콜라 학자들은 진정으로 복음에 몰두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학은 단지 허튼 소리들의 모음이며 그 질문들은 무용한 것들이었다. 그들의 허탄한 지성주의는 심지어 회개까지도 추상적으로 다루었다.⁵³⁾ 사들레 자신도 “너무나 나태한 신학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양심의 심각한 투쟁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반적인 경우” 였다.⁵⁴⁾ 또 칼뱅은 소르본느의 학자들에 대해서도 말한다.

스콜라 학자들의 지적 과도성 뒤에는 비밀스런 독약인 교만과 야망이 숨어 있다고 느낀다.

칼뱅은 자신의 신학이 스콜라식의 과학적 담론이나 신자들의 신앙적 삶의 실제와 동떨어진 추상적 사변으로부터 탈피한 신학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인문주의적 방식의 성서신학자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도 역시 체계성에 얽매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바우스마 368-369) 칼뱅은 교육적으로 좋은 가르침은 체계적인 서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유용성의 문제였지 진리성의 문제가 아니었다.⁵⁵⁾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칼뱅의 견해)

칼뱅에게는 근대의 경건주의나 근본주의 전통과는 달리 학문과 신앙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있었다. 이것은 반지성주의와 무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 시대의 학문은 인문주의적인 학문이었다. 칼뱅의 경우 학문이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고급한 신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을 함양해 주기 때문이다. 학문은 단지 현학적인 지식의 과시나, 인간적인 호기심의 충족으로서는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칼뱅이 학문관에서 주요한 특징은 학문적 과업을 신적 소명(聖召)의 한 가지로 간주한 것이다.

51) *Ibid.*

52) *Responsio ad Sadoleti Epistolam*, CO. V. 395-396.

53) 장요 1.17.2; 3.4.1.; 민수기 주석 23:1

54) *Responsio ad Sadoleti Epistolam*, CO. V.405.

55) 체계에 대한 거부는 “복음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의 인식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바 우스마 160



그가 목회자 또는 설교자에게 일급의 학문적 수련을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한 것이라든지, 교회의 교사(교회학교 또는 신학교의 교수 또는 학자)를 교회 직분론에서 항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것을 말해 준다. 오늘날 이 점은 주목받을 이유가 있다. 교회사 속에서는 학문을 종교적 소명 즉, 그리스도의 왕직(kingship)에 대한 봉사(academic service for Christ, the king)⁵⁶⁾으로 간주하며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는 전통이 있는 반면, “무지는 경건의 어머니”라는 풍자적인 경구처럼 신앙과 학문의 상관성을 오히려 부정하는 반지성주의의 상반된 흐름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⁵⁷⁾

반지성주의와 상관성을 갖는 근본주의는 교의적으로 전통적인 종교개혁의 신조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자세와는 대단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성적, 문화적 사안에서 판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근본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교리에 근거하여 인간이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래 학문이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전제한다. 하지만 근본주의 신앙에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건전한 기독교 학문이 불가능해진다.⁵⁸⁾

그렇다면 전적 타락교리의 창시자인 칼뱅에게서는 이성의 역할과 학문의 가능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전적 타락 교리가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진 기독교 사상이라면⁵⁹⁾ 칼뱅이 신앙과 이성적 학문의 통합을 어떤 근거에서 성립시켰는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칼뱅이 학문관의 또하나의 요체는 그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학문 또는 이교사상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반은총론에 근거한다. 칼뱅은 성서와 교부들의 예를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⁰⁾ 어떤 진리가 비기독교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칼뱅은 세속학자들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였다.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서 칼뱅은 철학에 관한 키케로의 정의를 끌어들이고 있으며(바우스마 235) 수시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의 철학자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는 모든 존재는 신에 의존한다는 플라톤의 통찰에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 (시편 104:29주석)

선택된 자들 역시 이성의 소리에 복종한다고 칼뱅은 기술하고 있다. (창세기 37:25 주석, 바우스마 235)

3. 신학교육과 인문주의 : 신학교육의 비전과 인문주의의 유용성

a) 신학교육과 인문주의

칼뱅이 신학과 인문주의의 통합사상을 가졌을 때, 인문주의의 학문적 범주는 인식론, 언어와 문헌학, 그리고 수사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료상으로는 고대교부들의 저작, 회랍 로마의 웅변가, 역사가, 시인, 철학자들의 저작이 연구대상이었다. 철학자들이 시인 웅변가들보다 덜 중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칼뱅은 참된 신학적 사고를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인문주의 학문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신학자가 된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칼뱅은 신학전공의 정

56) Etienne Gilson, *Gilson Reader*

57) Q. 브린은 *Christianity and Humanism*(1968)에서 교회는 학문의 어머니(church as mother of learning) 또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조명한 바 있다.

58) 조용훈, *통합연구* 17

59) 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사59.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와 다르니라,

60)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말, <고린도 전서 주석> 15: 33의 바울의 예, <디도서 주석> 1:12에서는 바질 인용; Bouwsma, 박종숙 역, p.235 n.6 Arthur Holmes, 서원모 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p.25.



규과정에 속한 적은 없었으나 프랑스 르네상스의 전반적인 신학적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스콜라적 전통이 있었으나 Divotio Moderna의 정신이 작용하였던 몽테귀 대학에서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메이저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로렌조 발라, 에라스무스 등 인문주의의 대가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학적 훈련을 쌓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학문은 신학적 교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콜라주의의 명제들을 비판해 주었고, 종교적 문헌과 제도를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켜 줌으로써 성서해석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세신학이 간과했던 성서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그가 당시까지 신학뿐 아니라 기존의 학문전반의 패러다임이었던 스콜라주의를 탈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문주의에서 대안적인 학문패턴을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대언어 연구와 문헌학적 방법은 성서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수사학의 정신과 기법은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의 메시지를 이해시키고 그들을 감동과 실천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해 주었다. 칼뱅은 이것이 영적인 목적의식을 결여한 스콜라 학자들의 끝없는 사변을 답습하는 것보다 신학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믿었다. 이미 이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신학자들의 뻘한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고대의 이방인 스승들에게서 인간과 종교, 그리고 신에 대한 담론까지도 더 유익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⁶¹⁾ 그래서 제네바의 신학교육에서는 스콜라 신학의 변증술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목회현장에서 논쟁적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게되자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배우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 시대의 인문학문의 역할과 가치는 신조보다는 바른 이상을 추구하게 하는 정신의 자세와 연구방법에 관한 것이었다.⁶²⁾ 그것의 학문정신으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판적 정신이었다. 칼뱅은 자기시대의 영적, 도덕적 위기와 함께 그것을 인식하고 다스려 나갈 지적인 장치에도 역시 위기가 도래하였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즉, 중세적인 스콜라주의의 학문과 지적 구조로는 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하였다.⁶³⁾ 인문주의는 기본적으로 실증적 연구의 방법에 기초하고 있었으므로 정직한 학문의 자세를 요구하고 함양하였다. 둘째는, 역사의식이 담긴 신학작업을 고취하였다는 점이다. 신학자로서 칼뱅은 자신의 신학작업의 목적을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명제를 진술하는데 두지 않고, 자기 시대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에 적실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⁶⁴⁾ 자기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신학자와 관념적으로 초월적인 계시의 이해에만 전념하는 신학자와는 신학작업의 성격과 그 진술의 방법이 달라진다. 칼뱅은 현실과 상관성이 없는 신학작업을 하지 않고자 했다. 이것은 전시대인 스콜라주의 속에서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신자세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서의 속성이기도 하다. 성서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씌여진 것으로서 기록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반영하며, 그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씌여진 것이다. 성서의 이러한 맥락적 특성을 이해할 때 신학작업은 모든 시대를 위한 보편 명제를 작성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시대의 상황과 청중들에게 말하며, 보편적인 신의 의지를 설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칼뱅의 신학은 방법론적 구조에서도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성서의 정신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이 주어진다. 성서에 묻혀있는 보화들을 발견하게 해 주는 것이 하는 것이 각 시대의 학문의 역할이며 과제라면 칼뱅에게는 인문주의 학문이 전시대의 편견과 허위의식을 벗어나 성서의 본래의 맥락을 발견하게 해 주는 도구가 된 것이었다.

셋째, 실천성과 이론성의 통전이다. 여기서 실천적이라는 말은 과제지향적이고 현장성이 있다는 뜻이다.⁶⁵⁾

61) 키케로의 <신에 대하여>에 나타난 종교문제를 다루는 사려깊은 신증성을 칼뱅은 가치있게 여긴다.
 62) Breen, D.Wilcox, 차하순 역
 63) 바우스마 191
 64) 바우스마 191 램 주석 1:9
 65) 강용원, “기독교교육과 신학”, <기독교 교육연구> 14권 1집(총신대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p.94. 슐라이에르 마하의 실천신학논의. Sara Little, “Theolgy and Religious Education” in Marvin M. Taylor, ed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in an Era of Change*(Abingdon,1983), pp.31-33.



제네바 아카데미의 신학교육은 개혁신교회의 인재양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인문주의적 방향으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칼뱅의 구상을 반영하고 있었다.⁶⁶⁾ 하지만,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육은 단순히 성직자 교육의 수준을 제고했다는 데에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카데미의 교육의 특징은 새로운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예술과 문학에서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의 새로운 개신교 대학의 교수들은 새로운 개혁신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교수를 훈련해 내야 하는 사명을 짐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교육이란 단순히 일반적인 문화적 가치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추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종교개혁 상황의 당면한 요구에 부응하는 치열한 현실적 작업으로서의 문화적 행동이었다.⁶⁷⁾ 여기서 인문주의 학문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의 추구, 즉 균형잡힌 인간성에 내재된 모든 능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루터가 이미 강조하였듯이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고도의 신학을 이해하고 수련하기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라는 견해가 칼뱅의 신학교육에 관한 분명한 통찰이었다.⁶⁸⁾

b) 성서와 인문주의 학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칼뱅의 신학과 교육에서 인문주의는 분명히 그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의 본래의 신앙개념과 신본주의적 세계관이 인문주의로 환원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면 양자의 결합은 어떤 양식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인가?(1,2장 참조)

그의 신학의 언어와 인식론적 구조, 교육의 철학과 교과과정 및 교육정책에는 인문주의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칼뱅 신학의 텍스트와 증거는 분명히 성서였다. 그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인문주의 정신과 상관성을 맺고 있는 이유는 인문주의 학문이 기존의 스콜라 신학의 패러다임으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성서의 메시지와 사상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칼뱅은 회심 체험에 근거한 경건, 즉 하나님의 엄위와 성령의 조명에 의한 확증의 체험으로 인하여 철저한 성서적 토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서를 “인간의 언어”로서는 언어학과 문헌학의 분석 대상으로 대하되, 권위와 영감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 “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신학함(doing theology)의 자세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그는 종교를 신학적 차원보다 도덕적 차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통상적인 인문주의자와는 구별되는 신학적 인문주의자였다. 칼뱅에게 성서의 “지식”은 단순히 관찰이나 발견 또는 기억에 의해 얻어지는 학문적 지식은 아니었다.⁶⁹⁾

신학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다른 여타의 학문처럼 단지 암기력이나 지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영혼을 송두리째 집중할 때 이해되는 것이요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좌소와 거주하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다.⁷⁰⁾

종교개혁자로서 그의 모든 저술과 가르침에는 시종일관 성서가 신학의 근본규범과 원천으로서 제시되며 그 중요성과 우위성에 대한 강조가 빠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신학의 원천으로서 성서의

66) 시린 62

67) 키틀슨, p.159

68) 박준철, 고중세 p.23

69) <강요> 3권 2장 14절 소제목은 “보다 고급한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므로 인간의 정신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도달한 곳에서조차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확신하는 동안에는, 그 확신의 (바로 그) 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의 능력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에베소서3:18-19) 능력이라고 아름답게 묘사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믿음으로써 수용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무한한 것이며 이런 종류의 지식이 다른 모든 이해보다 훨씬 더 고급하다는 점이다.(강요 3.2.14)

70) 김재성, <최근의 칼뱅연구>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조주에게 오기 위한 길잡이와 교사로서 성서가 필요하다.(강요 1.6.1)

만일 참다운 종교를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의 교훈을 받아야 하고 또 한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건전한 교리의 작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아야 한다.(강요 1.6.2)

성서는 성령의 학교이다. 그 안에는 알아서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강요 3.21.3)

칼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성서는 학교 또는 교과목”으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라고 지적한다.⁷¹⁾ 그러므로 칼뱅의 신학은 성서를 통해서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고, 그는 언제나 성서 위에서만 자기의 신학적 프로그램을 성립시키려는 자세를 견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교육에서도 성서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1938년의 “제네바 학교를 위한 시안 “에서도 ”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근거가 된다 “고 하면서 성서가 신앙교육에서만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중요함을 천명하였다. 그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서의 권위를 받아들였으므로 교육의 영역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성서의 건전한 지식은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⁷²⁾



<참고문헌>

강용원, "칼빈의 교육활동과 의의에 관한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78)

곽차섭,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歷史學報, 1985 No.108)

김득룡: 칼빈주의 문화적 형성력, <신학지남> (82-1)

김영한, “서양의 인문주의 전통과 그 변천 “ (역사학회, 1998, KRF연구결과논문)

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서울: 이레서원, 2001)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델란히톤의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 개편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95)

양금희,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9)

이양호, <칼빈> (한국신학연구소, 1997)

_____, “신학구조”,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콘시스토리의 활동”, 한국 칼빈학회,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71) Parker, pp.51-54.

72) Gregg Singer, John Calvin: Hiss Root and Fruit, p.56.



- 정대현 외, <표현 인문학>, (서울, 생각의 나무, 1997)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 (서울, 성서협회, 1978)
- 정일용, 칼빈의 교리교육과 교육목회 “, 신학지남 90-1
- 진원숙, “르네상스와 기독교” , <대구사학>, 38집
- 한춘기, “성화의 교육적 가능성과 수단에 관한 연구” , <총신대 논총>,17집 (1998),
- 황성철, “기독교 강요의 교육, 신학지남 80-2
- _____,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신학지남>(2001, 봄).
- Bouwsama, W.,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1988)
- _____, "The Peculiarity of the Reformation in Geneva" *Religion and Culture in Renaissance and Reformation*, p.71.
- _____, "Renaissance and Reformation" : An Essay on Their Affinities and Connections" in *A Usable Pas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90)
- _____,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ing", *Calvin Theological Journal*, (Nov. 1982)
- _____, Calvinism As Theologia Rhetorica: Protocol of the Fifty-Fourth Colloquy (Colloquy 54) in Gamble,
- Breen, Quirinus, *Christianity and Humanism* (Eerdmans, 1968) 동국대 소장.
- _____, *John Calvin : A Study in French Humanism*(1931)
- _____, "John Calvin and Rhetorical Tradition", *Church History* XXVI(1957)
- Dickens, A.G., *Reformation and Society in Sixteenth Century Europe*(London, Harourt, Brace& World, 1966)
- Dillenberger, John, *Contours of Faith* (1969)
- Gamble, R.C.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1990," in Wilhelm Neuser ed., *Ca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Eerdman, 1990)
- Holmes, Arthur, 서원모 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1).
- Handerson, Robert, *The Teaching Office in the Reformed Tradition :A History of Doctoral Ministry*
- Kittelson, James, "Learning and Education: Phase Two of the Reformation" *Die Danische Reformation vor Ihren Internationale Hintergrund*, ed., Leif Grane and Kai Horby(Gottingen,1990)
- _____, James, *Capito, From Humanist to Reformer*
- Reid, W. Stanford, "Calvin and the Founding of the Academy of Geneva",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18(1955-56)
- Rex, Richard, "Humanism" in *The Reformation World*, A. Petegree ed., (Routledge,2000)
- Sapp, Charles Leon, *John Calvin, Humanist Educator: the History of Ideas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al Change*, Ed.D.diss.,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1970)
- Woodward, William Harison, *Studies in Education during the Age of the Renaissance(1400-1600)*(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 글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http://www.johncalvin.co.kr/>)에서 펴온 글입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